

광주, 이재명 64.7%·윤석열 11.4% 전남, 이재명 69.9%·윤석열 9.8%

광주일보 70주년 신년 여론조사 이재명 대부분 신년 조사서 앞서

광주일보 창사 70주년을 맞아 실시한 신년 여론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광주·전남지역에서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3·4·5·6면〉

이런 가운데 새해를 맞아 공개된 여론조사 중 다수 조사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지지도가 윤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결과가 나왔다.

광주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달 29일~30일까지 광주와 전남지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각각 809명과 807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이 후보는 광주에서 64.7%, 전남에서는 69.9%의 높은 지지율을 얻었다. 윤 후보는 광주에서 11.4%, 전남에서는 9.8%를 얻는데 그쳤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광주에서 6.8%의 지지율을 얻으며 4.8%에 그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앞섰지만, 전남에서는 3.6%에 그치면서 안철수(5.6%) 후보에게 뒤졌다. 광주지역 부동층은 10.5%(없음 8.0%·잘 모름 2.6%)였고, 전남지역 '부동층'은 9.0%(없음 6.2%·잘 모름 2.6%)였다. 지역별로 각 후보들의 지지율을 세부적으로 보면

광주에서는 모든 계층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 응답이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남구(68.5%)에서,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76.5%)·40대(74.8%)·50대(74.4%)의 지지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진보층(74.6%)과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73.0%), 자영업(70.8%)에서 지지층이 두터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 더불어민주당(85.9%) 및 열린민주당(79.6%) 지지층 등에서 전체 평균 대비 높게 나왔다. 윤석열 지지는 동구(18.1%), 30대(16.0%), 보수층(25.4%), 국민의힘(72.7%) 및 국민의당(40.0%) 지지층 등에서 다소 높았다.

전남지역에서도 모든 계층에서 이재명 지지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40대(78.9%)와 50대(74.7%)·60세 이상(77.7%) ▲진보층(81.3%) ▲가정주부(75.1%)·자영업(79.8%)·농림어업(75.8%) ▲더불어민주당(88.1%)과 열린민주당(86.8%) 지지층 등에서 전체 평균 대비 높게 나타났다.

윤석열 지지는 30대(14.1%)와 보수층(22.5%), 국민의힘(53.1%)과 국민의당(35.4%) 지지층 등에서 다소 높았다.

이번 여론조사는 광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8명과 전남 만 18세 이상 남녀 807명을 대상으로,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안심번호 80%와 유선전화 20%를 이용한 ARS 자동응답시스템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광주와 전남 ±3.4% 포인트(95% 신뢰수준)이며, 응답율은 광주 4.8%, 전남

5.1%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신년에 발표된 다수의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크게 앞선 결과들이 나오면서 주목된다. KBS가 한 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9-31일 18세 이상 1000명을 상대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이 후보 지지도는 39.3%로 윤 후보(27.3%)를 앞섰다. 두 후보간 격차는 오차범위(±3.1%포인트)를 넘어선 12%포인트였다. 이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8.1%, 정의당 심상정 후보 3.2% 순이었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달 29-31일 18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74.7%)·60세 이상(77.7%) ▲진보층(81.3%) ▲가정주부(75.1%)·자영업(79.8%)·농림어업(75.8%) ▲더불어민주당(88.1%)과 열린민주당(86.8%) 지지층 등에서 전체 평균 대비 높게 나타났다.

넥스트리서치가 SBS 의뢰로 지난달 30-31일 18세 이상 1003명을 상대로 전화면접 조사(무선 86%·유선 14%)한 결과 이 후보 34.9%, 윤 후보 26.0%로 오차범위(±3.1%포인트)를 벗어난 8.9%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안 후보와 심 후보는 각각 7.8%, 2.6%를 기록했다.

이 여론조사들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호랑이해 장엄한 일출 2022년을 밝히는 새로운 태양이 무등산을 박차고 힘차게 솟아오르고 있다. 광주·전남은 오는 3월 대통령선거와 6월 지방선거를 맞아 실질적인 국토균형발전 정책과 정치대개혁 등을 통한 획기적인 지역경제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광주 광산구 월출동에서 촬영한 150여장의 일출 장면과 우치동물원의 시베리아 호랑이 모습을 합성 작업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일보 70주년...대전환 기틀 마련 나선다

지역발전 이끌 메가프로젝트 발굴 수도권·영남권과 경쟁 토대 시급

광주일보 창사 70주년을 맞는 2022년 임인년 새해는 어느 때보다 중요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는 여야 후보들이 지역 대선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 만큼 이를 계기로 광주·전남 대전환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일보는 지역 발전의 선봉에 선다는 각오로 광주·전남 미래발전의 획기적인 도약을 위한 새로운 메가프로젝트를 발굴해 주기를 광주·전남도와 지역 정치권에 촉구하고자 한다. 또 올 한 해 담보 상태에 있는 균형발전 이전 사업 등의 지역현안을 풀어나 '광주·전남이 하나'라는 동질감을 회복해

야 한다는 점도 강조할 방침이다. 민선 8기에서는 광주·전남이 상호 장점과 강점을 부각시키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주며, 수도권, 영남권 등과 차별하게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민선 7기 광주형 일자리와 AI(인공지능) 중심도시, 신재생에너지 등 블루이코노미 프로젝트를 새로운 미래비전으로 제시하며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 국비 지원 규모도 꾸준히 증가해 각각 3조원, 8조원 시대를 열면서 지역 내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경제·산업 시스템, 연구개발 역량 등을 갖추어 갔다. 하지만 문제는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광주·전남은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등에 밀려 인구·경제 규모 등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광주일보는 이 같은 원인을 해방 이후 2000년까지 경부선 중심의 국토 개발, 이후 국가균형발전 필요성이 제기된 뒤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충청권 성장 속에 광주·전남이 좀처럼 발전의 모멘텀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이에 민선 8기에서는 그동안 수도권·영남권·충청권 등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국가 재정을 배분했던 정부가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권에 대해 전폭 지원하도록 요구하고, 지역의 모든 역량을 모아 대규모

프로젝트를 구상·실현시켜야 할 것이다.

광주·전남 각각의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면서 AI와 신재생에너지, 문화·예술·역사 콘텐츠와 관광, 탄소중립과 기반산업, 기후변화와 천혜의 자연 등 지역 내 계획과 자원을 융복합해 시너지를 높여야 한다. 여기에 완벽한 도로·철도망을 구축해 광주·전남과 타 지역 간, 광주·전남 내부의 사람 및 물류 이동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야 할 것이다. 중심도시인 광주와 전남 곳곳을 1시간 내로 연결시키는 고속도로망을 서둘러 구축하고, 광주와 전남 서부·중부·동부권의 거점과의 철도망을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광주가 AI·금융·연구개발·교육·중심상업·문화 등, 이를 뒷받침하는 전남은 신재생에너지·관광·자연·바이오·우주·농수축 등의 분야에 서 각각 특화 발전하도록 상호 지원하면서 지역 전체의 큰 그림을 그려 '공동운명체'라는 동질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박재영 광주전남연구원장은 "민선 8기는 민선 7기의 성과를 이어받고 광주·전남이 향후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 가장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는 토대를 닦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70년 광주일보, 100년을 준비합니다



광주, 민중화 도시에서 경제·문화 도시로

광주가 '민중화 도시'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경제·문화 중심 도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더 큰 광주로의 도약' 방안을 모색한다. 광주형일지리의 요람인 GGM(글로벌모터스)을 전기차 전진기지로 탈바꿈하는 방안과 국내 유일한 AI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이 투자유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또 인구절벽 현상에 가로막힌 지역 발전을 위해 '아이날아 잘 기르기' 등 광주시가 제시한 정책을 발전·보완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이와 함께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계기삼아 광주를 교통복지 도시로 거듭나게 하는 구체적인 대안도 풀어 낼 예정이다.



'세대별 맞춤형 전남 관광지' 탐방

20대 시절 배낭을 메고 홀로 떠나는 여행과 40대 부부가 가족과 함께 나서는 여행은 다를 수밖에 없다. 여행객·관광객 연령대에 따라 고려할 요소가 달라서 관광지 선정부터 이전과 다를 수 없는 것. 광주일보는 지난해 선보인 '코로나 시대 전남 안심 관광지 50선'에 이어 올해 연중 기획으로 '세대별 맞춤형 전남 관광지' 탐방에 나선다. 지난해 기획에서 코로나 시대 전남의 숨겨진 관광자원을 먹거리와 맛집을 곁들여 소개했다면 올해는 연령대별 맞춤형 관광지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줬다.



세계의 문화도시를 가다

올해는 아시아예술공원, 광주비엔날레전시장, 아시아디지털아트 아카이빙플랫폼 조성, AMT(미디어아트 창도시 플랫폼)센터 개관 등 문화광주의 미래를 바꿀 메가 프로젝트들이 속박하게 펼쳐진다. 하지만 문화도시의 품격은 화려한 인프라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숲, 공원, 벤치, 문화 시설 등이 잘 갖춰져 있는 도시가 진정한 문화도시다. '살기 좋은 도시'로 꼽히는 세계의 문화도시들을 찾아 광주의 미래를 들여다 본다.



광주, 이제 국제 스포츠도시다

광주시가 명실상부한 국제 스포츠도시로 '우뚇' 서고 있다.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와 2019 광주세계수영대회 성공 개최를 발판으로, 2025 광주 세계야구선수권대회 유치에도 성공했다. 광주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2038 광주대구 아시아안게임 공동유치전에도 뛰어 들었다. 아시아안게임 유치를 계기로 유니버시아드, 세계수영대회 성공 개최 원동력이었던 시민·자원봉사자 등 활약상과 대회 레거시 진행 상황 등을 살펴본다. 또 국제 스포츠 도시에 어울리는 글로벌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제안과 도시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한 특급호텔 유치 등 도시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논의도 풀어낸다.



'행복해지려면 건축과 도시를 바꿔라' 연중 시리즈

연중 시리즈 '행복해지려면 건축과 도시를 바꿔라'는 도시와 건축이 행복한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행복한 삶을 위해 도시와 건축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탐구해 보는 기획이다. 도시와 건축 관련 교수, 연구원, 건축가 등 국내외 일본에서 활동하는 40여명의 전문가들이 필진으로 참여하는 이번 시리즈에서는 보행 도시, 스마트 도시, 공공 건축, 살고 싶은 주택 등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펼쳐나간다.



'바이올린의 여제' 정경화 리사이틀

'호남예술제'를 통해 미래 예술가들을 발굴해온 광주일보는 지금까지 빈필과 베를린 필 연주자들로 구성된 앙상블 '필하모닉스'를 비롯해 유기 구라모토, 디토 앙상블 등 정상급 연주자를 초청, 리사이틀을 열어왔다. 올해는 '바이올린의 여제' 정경화가 클래식팬들을 찾아온다. 1970년 앙드레 프레빈이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오케스트라와의 협연으로 세계 무대에 데뷔, 50여년간 세계 최정상급의 자리를 유지해온 정경화는 이번 리사이틀에서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선보인다.



광주일보 70주년 엠블럼
희실표가 원 주위를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는 시각적 표현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한걸음이 독자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光州日報社

2022 광주일보 신춘문예 당선작

- ▲시 강희정 '조퇴'
- ▲소설 박정수 'V 난쟁'
- ▲동화 황경란 '동물 환상국'

2022 새해 특집 32면 발행

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광주일보 임직원 일동

